

강기정 시장, 광주 곳곳 '민생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1일 오후 광산구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 우리동네의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우리동네의원 찾아 '정책소풍'... 뇌졸중 환자 '방문 진료' 동행 시행 앞둔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가 인프라 구축 등 의견 청취

광주시가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민생 현장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1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광주의료사협)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의원 등을 찾아 '정책소풍'을 열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워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책소풍은 민선 8기 현안에 대한 시민 정책소풍 창구로, 광주시는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의료사협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 현장도 동행했다. 광주의료사협이 설립한 우리동네의원은 1000명의 시민이 직접 출자해 만들었으며, 2명의 의사

가 상주하면서 방문진료·재활, 장애인주치의, 장거리 병원동행서비스 등 건강소외계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 시장은 또 이날 광주의료사협의 늘봄복마음 건강센터에서 진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을 앞두고 최일선 업무를 담당할 사물관리 담당 공무원 운영,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등 추가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빈틈없는 전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사각지대와 특새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으로, 시민 누

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30일에는 소통 부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맞장 토크'를 벌이기도 했으며, 이날 중으로 자치구의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있는 구의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 시장은 광산구의회를 시작으로 7일 북구, 9일 동구, 15일 서구, 23일 남구 의회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강 시장은 "구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구의회뿐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례적인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40년 묵은 신안교 약취 연말까지 해결

광주시 11억 투입... 서방천 챔스필드 수변공간 조성 시너지 기대

광주시가 올 연말까지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신안교 약취 민원을 해결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 신안교 주변 약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신안교 주변 하수약취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3월말까지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공사를 시작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비공사는 신안교 일대 약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하수시설을 옮기지 않고, 약취 밀폐를 위한 독립 구조물과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밀폐된 약취 탈취를 위해 별도의 약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안교 하부에는 1985년부터 용봉천과 서방천에서 이송되는 하수를 차집해 하수처리장으로 보

내는 하수시설이 있는데, 외부로 노출돼 심각한 약취를 유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취 주요 원인인 시설을 교량 하부로 이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신안교 하부가 단단한 바위인 탓에 교량 균열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고민 끝에 광주시 기후환경국 직원들은 '신안교 약취 민원 해소'를 위한 공직자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하수시설 이전 사업(206억원)보다 195억원이나 절감한 11억원만으로 약취 밀폐 구조물과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완성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취약계층 가정 위문

장성 독거노인 이어 곡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 상황 등 살펴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 지사가 취약계층을 잇따라 찾아 이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위로했다. 지난 26일 장성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한데 이어 31일에는 곡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집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을 위한 민생대책의 하나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홀로사는 어르

신 5만5600가구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원씩 총 111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9212개소에도 난방비 148억원을 지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분들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농어귀촌 유치' 735억 투입

전남도, 청년층 농업·창업 촉진, 안정적 정착 등 11개 사업 추진

전남도는 청년층 창업 촉진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35억원을 투입해 11개 핵심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중점 추진할 귀농어귀촌 분야 핵심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농촌(전남)에서 살아가기 지원,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농촌이 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49억원을 들여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기틀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은 예비(초보) 귀농어귀촌인의 농어촌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스스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다.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에게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팀당 30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다. 이밖에 도시민 귀농어귀촌인 유입 캠페인·어울림 마을 조성·어울림 대회 등 귀농어귀촌 유치활동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이 전남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순사건 신고접수 연말까지 연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록 지사 "환영"

행정안전부가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실조사와 유적지 정비 및 올바른 역사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인 여순사건은 70여 년 긴 세월 금기의 역사였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로 여순사건의 비극적인 실체가 드러났고, 2021년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여수·

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려 정부 대표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사죄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정부가 공식 결정해 국가 폭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와 오명을 씻는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1월 20일까지 1년이었던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환영 성명을 통해 "이 기간 모든 피해자가 신고조사에 참여하도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결판 판매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방인

이기원이 쓴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